

루마니아의 에너지 정책

최 근 루마니아의 사회혁명은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비억제 완화가 대표적인 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공급력을 높이기 위한 탐사개발의 확대로 생산기반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입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정책변화는 첫째는 국내 소비통제의 완화이다. 루마니아정부의 과거 에너지공급정책은 에너지 수입 억제 정책과 국내 非工業部門의 에너지소비 통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는 루마니아가 고립주의를 신봉하고 민족주의를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요구의 확대로 소비억제에 대한 불만해소를 위하여 국내 에너지공급, 특히 난방용 및 발전용 에너지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둘째는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탐사개발 확대가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궁극매장량의 확인을 위한 지질탐사에 착수하였다. 루마니아의 石油가스매장량은 '90년대말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국가의 産業化 초기만 하더라도 동유럽 최대매장량을 가졌으나, 에너지 多消費産業의 육성과 무계획적인 에너지 개발로 인하여 가채매장량의 급속한 하락을 가져왔다.

셋째는 COMECON회원국 및 주변국과의 에너지협력관계 개선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루마니아는 지정학적으로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COMECON諸國과의 공동사업으로 소련산 原油 및 가스 도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87년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가스량은 33억 입방미터이며, '90년대는 더욱 物量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과 경제협약의 일환으로 '90년부터 원유 30만B/D, 가스 10억 입방미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原子力發電계획의 합리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마니아는 그 동안 무리한 原電건설 계

획과 대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원전발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石油, 石炭火力發電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존매장량의 고갈에 대비한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이의 실행이 요청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책변화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수입의 增加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의 공급 통제 완화에 따른 국내소비 증가와 發電原으로의 석유나 석탄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탐사, 생산기반의 제고 여하에 따라, 에너지수입의 증가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루마니아의 개혁정부는 기존의 정유산업의 시설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개발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할 경우 製品生産用 원유의 輸入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石油産業은 상당한 貨加工 거래(PROCESSING DEAL)를 시도하고 있다. '88년 현재 정제능력은 13개 정유사로 615천B/D이며, 이 중 국내 소비용이 360천B/D이다. 이와 같은 정제능력과 국내 소비의 차이는 임가공거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90년부터 적용될 이란산 원유도입분에 대하여 貨加工去來가 1/3 이상 포함되어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루마니아 에너지 수급(1987)

(단위 : 백만TOE)

	賦存量 ¹⁾	生産	消費	純輸入
石油	221(백만TOE)	11.0	17.8	7.0
가스	348(10억입방미터)	34.0	34.7	1.8
石炭	N. A.	13.9	17.9	4.6
電力		2.7	3.8	0.3

<資料> EUROPEAN ENERGY REVIEW, 1989. 6

<註1> QUARTERLY ENERGY REVIEW : USSR AND EASTERN EUROPE, 1987. 4/4.